

▶ 주요 지표 일일 등락률

S&P 500	7,551.81pt	-0.45%
DOW	51,461.90pt	-1.21%
NASDAQ	25,978.43pt	-0.01%
STOXX 600	637.09pt	0.46%
美 국채 10년물	5.02%	2.06bp
美 국채 2년물	4.74%	7.31bp
달러 인덱스	100.32pt	0.70%
국제유가 (WTI)	\$102.43	-3.21%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FOMC 이벤트 확인 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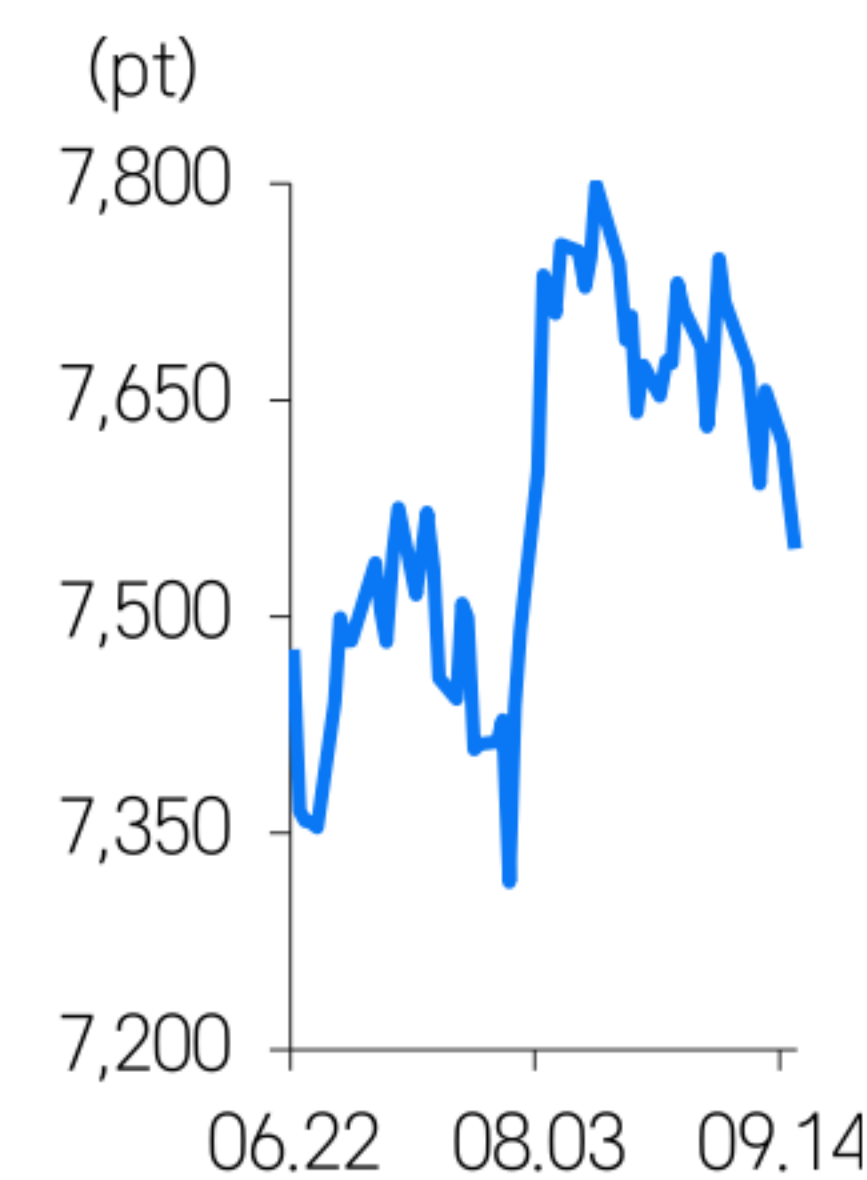
9월 FOMC 회의 결과는 만장일치로 금리인상, 올해 한 차례 추가 인상도 예고
장 초반 유가와 함께 하락했던 시장 금리는 FOMC 결과 공개 후 상승 반전

지난밤 뉴욕 증시는 장 초반까지 유가 하락에 힘입어 오름세를 나타냈으나, 이후 공개된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지면서 종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멘의 후티 반군과 회동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국 외교 당국이 이란과 미국의 협상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WTI 유가는 이날 3.21% 내린 102.43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시장금리 하락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시각 기준 오후 3시를 기점으로 FOMC의 만장일치 금리인상 결정이 확인된 직후, 미 국채 수익률은 장단기 모두 급한 오름세로 반전했습니다. 장중 5.0%선을 하회하던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전일 대비 2.1bp가량 상승한 5.02%를 기록했고,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7.5bp 된 4.74%로 장을 마감하며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 상에서는 올해 한 차례 추가 금리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연내 누적 2회 인상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시장의 예상과 부합했습니다. 9월 이후 연내 동결을 예상한 위원은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내년의 경우 금리 동결이 위원들의 컨센서스였고, 2028년부터는 인하 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금리선물시장에서는 2027년에도 2차례 가까운 금리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을 현재 가격에 선반영한 상태입니다. 단기 정책금리 경로는 시장 기대보다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중장기 경로는 인플레이션 통제에 미흡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공개된 8월 소매판매는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도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으며, 이를 반영한 GDP Now 모델은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5.1%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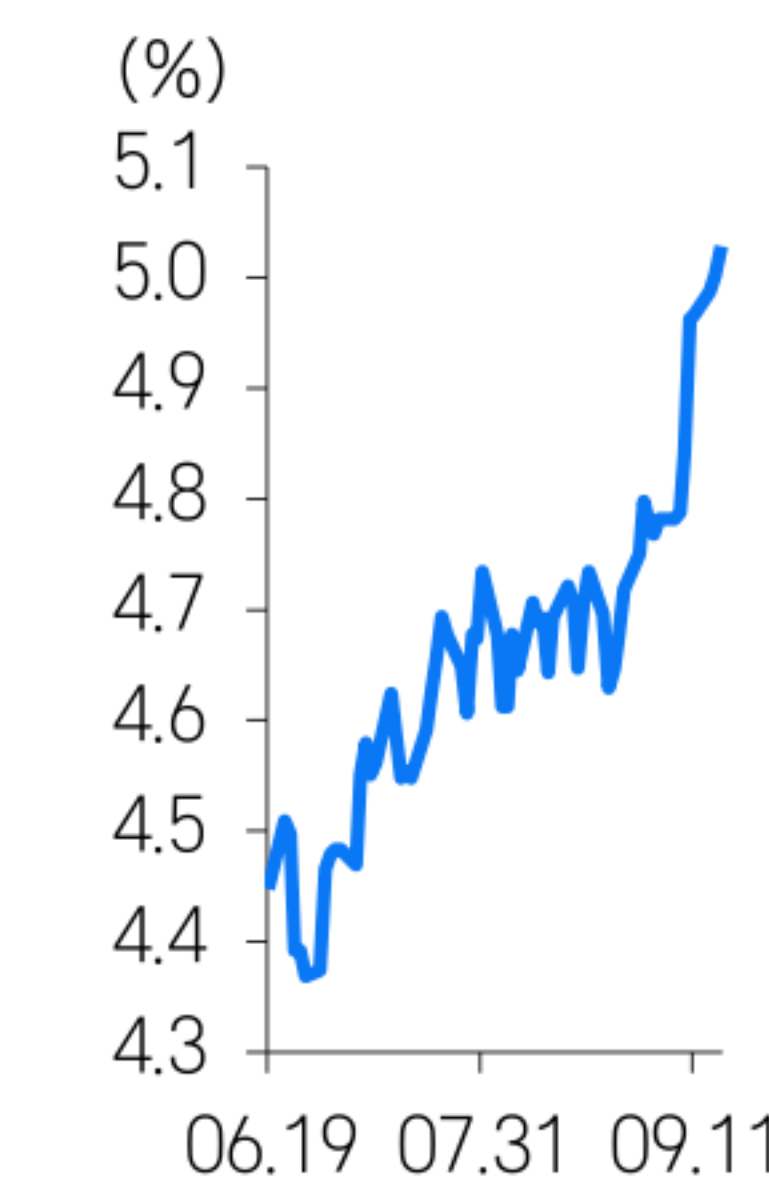
이날 S&P500은 전일 대비 0.45%, DOW는 1.21% 각각 하락했습니다. 반면 NASDAQ은 0.0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3% 오르며 상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메모리 업체로 구성된 ETF인 DRAM 역시 0.58%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IT와 헬스케어, 유틸리티 섹터만 소폭 강세를 띠었고, 나머지 모든 섹터는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빅테크 중에선 스페이스X가 5%대의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와 메타, 그리고 테슬라와 애플이 1% 미만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Microsoft는 1.37% 내렸고, 아마존과 알파벳은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메모리칩 생산 협업 가능성이 회자된 인텔은 4.03%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P500 3개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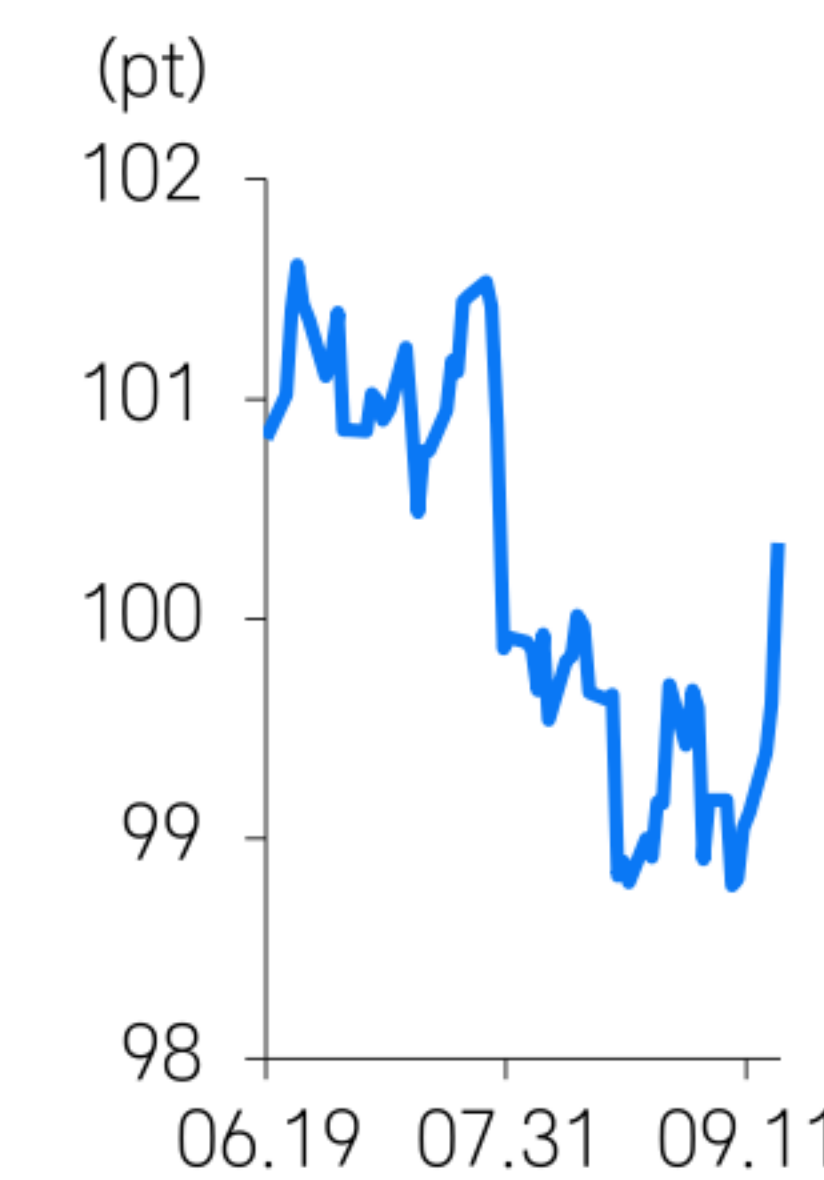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美 국채 10년물 3개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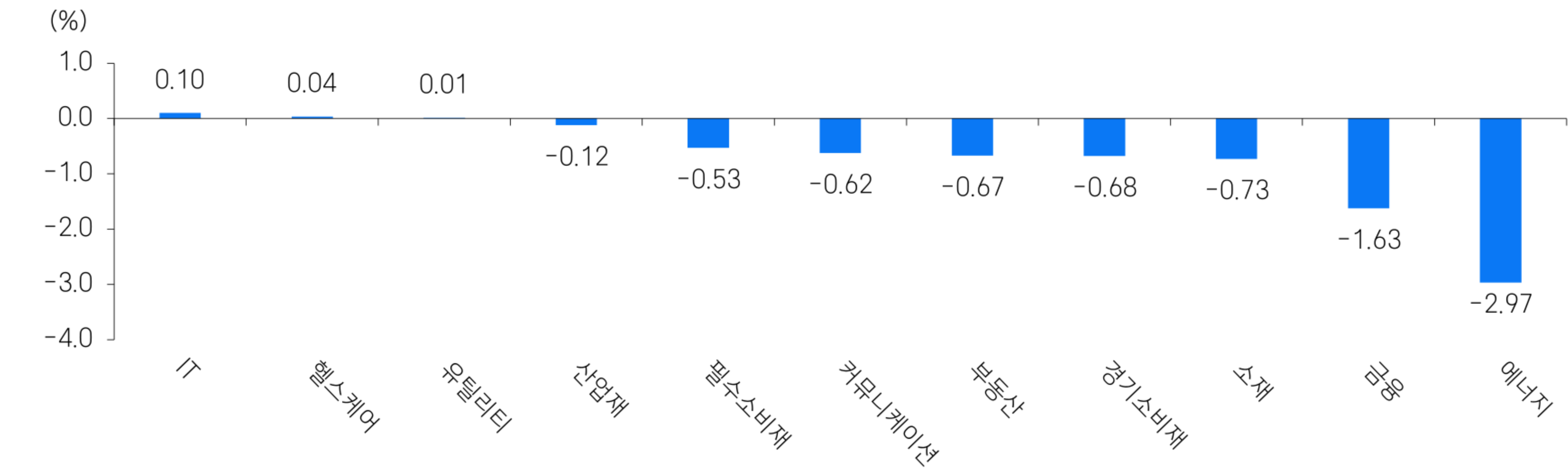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달러 인덱스 3개월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업종별 수익률



참고: S&P500 GICS Level 1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S&P100 수익률 상하위 종목

▲ UP	종목명	수익률	섹터
1	GE 버노바	4.8	산업재
2	인텔	4.0	정보기술
3	허니웰 인터내셔널	2.1	산업재
4	오라클	2.0	정보기술
5	제너럴 에어로스페이스	1.9	산업재

▼ DOWN	종목명	수익률	섹터
1	코노코필립스	-6.1	에너지
2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4.4	정보기술
3	U.S.뱅크	-4.0	금융
4	골드만삭스 그룹	-4.0	금융
5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3.7	금융

참고: 섹터는 GICS Level 1 섹터 분류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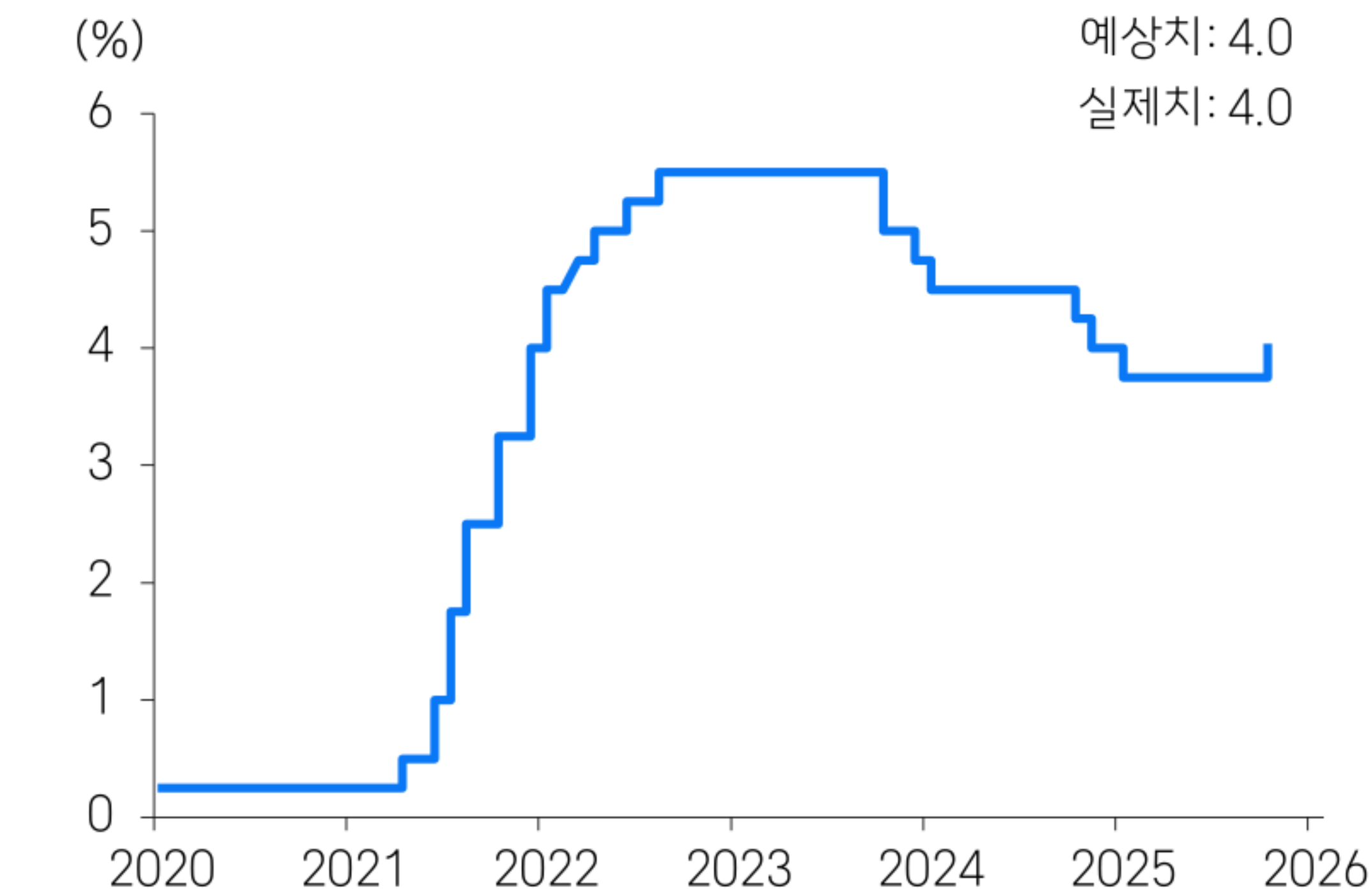
한국 인덱스 관련 지표

지표	수익률	1주일	1개월
MSCI KOREA ETF	-0.54	-7.99	-2.3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63	-5.74	-9.43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0.47	-3.26	-1.75
MSCI EM ETF	-0.06	-4.03	-1.34
NDF 원화 환율	0.57	-2.19	2.72

참고: ETF는 iShares ETF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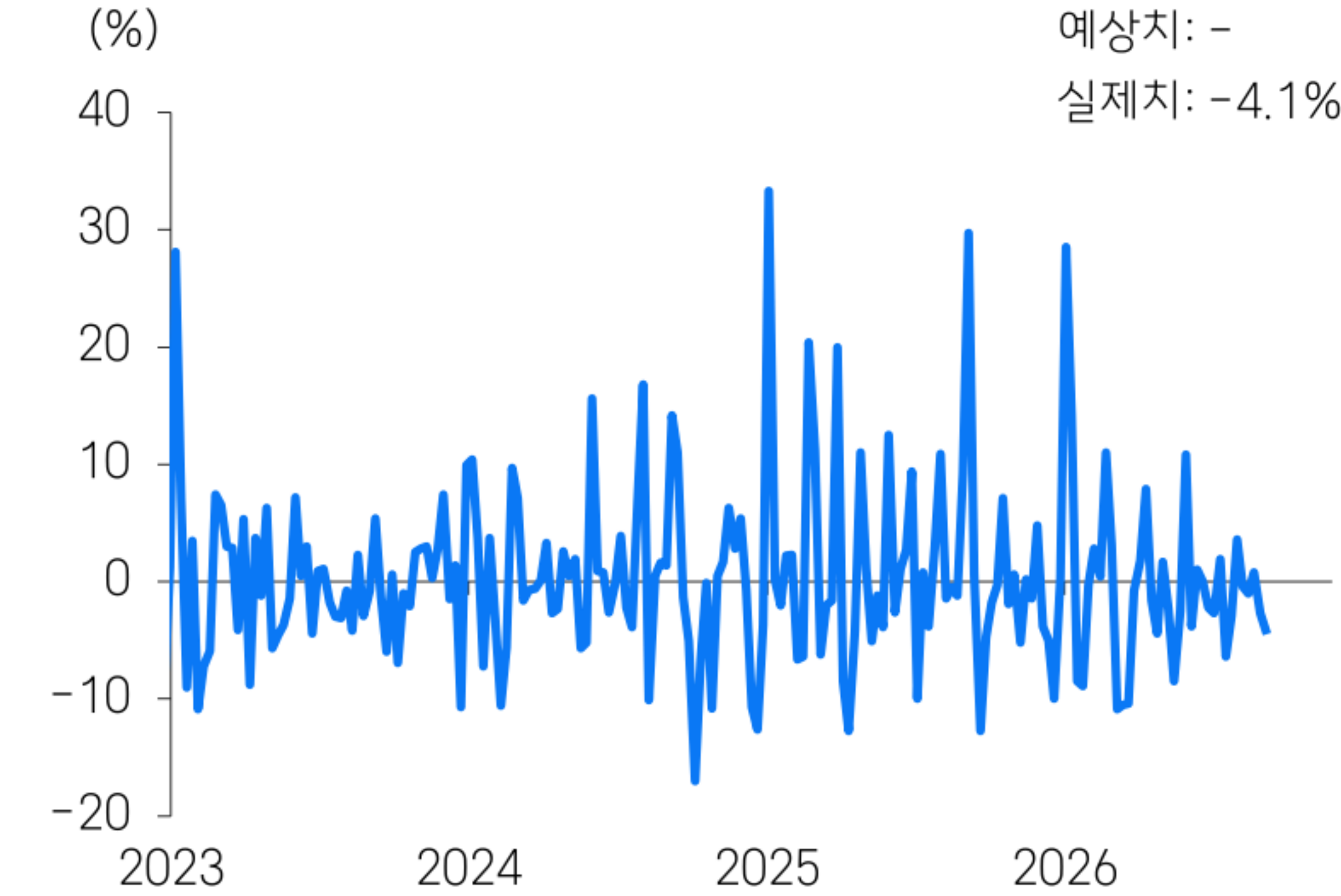
주요 경제 지표

미국 9월 FOMC 기준 금리 상한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미국 9월 3주차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Samsung Securities

Samsung Secu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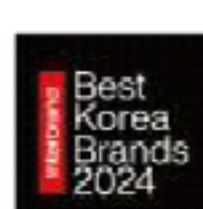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